

서호인의 '소설처럼'



쇼츠로 답을 수 없는 최은영의 소설

최근 주변에 쇼츠 콘텐츠에 중독된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솔직히 말하자. 주변 사람이 아닌 글을 쓰고 있는 내가 그렇다. 틱톡에서 시작해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에 이르기까지 길면 1분에서 몇 초에 불과한 콘텐츠를 서비스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짧은 콘텐츠들은 우리 일상에 그 이름만큼 짧고도 굵은 방식으로 존재한다.

일과를 끝내고 자리에 누워 쇼츠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거짓말처럼 흘러가 있다. 쇼츠는 실용적인 정보를 주었다가, 현란한 춤사위를 보여주었다가, 정치 현안에 대해 다분히 정파적으로 말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의 장면을 짧게, 참을 수 없이 짧게 재생한다.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많은 정보가 밀려와 도리어 아무런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세상사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잘 됐다 싶기도 하지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면 좀 썩썩한 마음도 드는 것이다. 이거, 괜찮은 걸까?

SNS와 OTT 시대가 열린 이후로 영화의 흥행 부진은 이제 따로 짚을 것이 없는 현실이 되었고 TV 드라마의 영향력도 예전과는 현저히 다르다. 특히 쇼츠에서는 안 본 드라마나 영화도 어디서 본 듯 느낄 수 있게 결정적 장면을 짧게 보여준다. 며칠 뒤서 쇼츠만 보다가 보면 최근 하는 드라마는 대체로 썰 수 있다. '연인'에서 남궁민이 어떤 대사를 하는지, '무빙'에서 봉석이가 어떻게 나서는지, '더 글로리'에서 복수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등등.

그 중 쇼츠의 사이다 같은 장면을 골라서 보여주는 편이다. 갑질 손님을 처단하기, 학교 일진을 때려잡기, 무개념 신입 사원을 교육하기 같은 것들이다. 그걸 보면 마음이 일면 시원해진다. 현실에서는 사이다는커녕 시원한 냉수조차 마시기 어려우니까.

이렇듯 창작자가 애써 만든 서사물이 쇼츠라는 투박하고 좁은 상자 속으로 옥여넣음을 당하고 있을 때, 그보다 더 오랜 서사물인 소설은 한발 비켜 서 있는 듯하다. 책을 읽는 사람이, 소설의 독자가 줄어들었다는 뻔한 말을 (언연한 사실이지만) 하려는 건 아니다. 쇼츠로는 한 장면도, 아니 한 단락도 답을 수 없는 소설이라는 장르의 귀중함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최은영 소설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가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야기는 제목처럼 아주 희미한 빛을 따라 나아가는 이야기이다. 최은영이 대학에 편입한 '희원'은 2009년 2학기 강사인 '그녀'를 만난다. 용산이라는 공간과 여성이라는 젠더로서 묘한 동질감을 느끼던 그들은 쓰고 읽음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화한다. 그들의 대화는 격정적이지 않고, 논쟁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이다는 없다. 우리의 많은 대화가 그러하듯 생각지 못하게 상처 입거나 반대로 상처 입힐까 걱정한다.

2009년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해다. 이 소설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용산을 외면하기란 어려운 일이

다. 이 소설의 인물은 지극히 현실의 우리와 같으므로 비극에 대한 해석 또한 갖가지이다. 지금의 용산은 그때의 용산과는 또 다른 의미와 상징을 갖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날의 용산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미한 빛을 남겼으리라 믿는다. 어느 순간 글이나 번역서를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진 그녀를 한겨울 희원이 떠올리듯이, 희원과 그녀의 관계를, 수업 시간의 발표와 에세이의 내용을, 전철에서 희원이 보았을 풍경을 쇼츠로 옮길 수 있을까? 그것은 편 집과 알고리즘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 같다. 좋은 소설 일수록 좀 더 그러하리라 믿는다.

쇼츠나 유튜브의 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설은 이야기하고, 사회적 참사를 다룰 때도 그런 마찬가지다. 수업에서 희원은 자신의 감정을 기술하고 풍경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에세이를 쓴다. 사이다 같은 정량감이나 시원함은 전혀 없는 그 글에서 글을 쓴 희원은 모종의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의 모욕감과는 상관없이 학생들의 토론은 이어진다. 누군가는 폭력적인 시위가 문제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것은 시민의 저항에 대한 잔인한 제압이었다고 말한다. 그 부분을 읽으며, 방금까지 보았던 쇼츠의 한 장면과 댓글창을 떠올리며, 이 아름다운 소설의 장면 장면이 댓글을 달 수 없음을 참으며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희미한 빛을 느낄 새도 없이 너무나 강렬하고 잔인한 쇼츠의 빛을 이제 그만 켜주어 좋겠다 다짐했다. <시인>

의료칼럼



최지민 상무365한방병원 한방재활 전문의

최근 건강을 위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발목을 빼앗는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발목 염좌는 가장 흔한 운동 손상으로 특히 야외 활동, 하이킹, 축구, 수영 등 신체 활동이 잦아지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

발목은 여러 개의 관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인다. 관절 사이에 존재하는 인대는 이러한 관절들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움직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이나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발이 갑자기 꺾이면 인대에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넘어서는 힘이 가해진다. 이로 인해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것을 발목 염좌라고 한다. 발목 염좌는 손상 당시의 발목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외측 인대, 내측 인대, 전방 원위경비 인대 손상으로 나뉜다. 그 중 90%가 발이 안쪽으로 꺾이는 내반 염좌에 의한 외측 인대 손상이며, 이 중 전거비 인대 손상이 가장 흔하다.

발목 염좌가 발생한 경우 심한 통증과 함께 열감, 부

발목 염좌

종이 동반되고 손상이 심한 경우 주변으로 멍이 들기도 한다. 만약 손상 후 한 시간 이내에 부종이 급속하게 진행되거나 네 발자국 이상 걷기 힘든 경우, 발목 안쪽이나 바깥쪽, 복숭아뼈 위 6cm 부근을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증상이 있는 경우 골절 감별법인 '오타와 앵클 룰(ottawa ankle rules)',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골절을 배제하고, 인대의 파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초음파나 MRI를 시행한다.

인대 파열 정도에 따라 1·2·3도 손상으로 구분되는데, 1도 손상은 인대가 약간 늘어나거나 몇 가닥의 섬유질만 파열된 경우, 2도 손상은 부분적으로 인대가 파열된 경우, 3도 손상은 완전히 파열된 경우이다. 3도 손상의 경우 수술을 통해 파열된 인대를 봉합하여 관절의 안정성을 회복시킬 수 있지만, 발목 외측 인대의 경우 보존적 치료의 결과가 수술에 비해 양호하여 최근에는 보존적 치료가 선호된다.

치료는 통증과 부종 감소를 위해 RICE(휴식·냉찜질·압박·높이 유지)를 시행한다. 통증과 부종이 심한 경우 보조기 또는 깁스를 사용한 일시적 고정도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 초기 치료로 2주 내 쉽게 호전되지만 5~33%의 환자는 1년 후까지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반복적으로 빠듯하거나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염좌가 재발하거나 관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통증이나 불편감이 발생하거

나 움직일 때 소리가 나고, 이차적으로 아킬레스건의 단축이나 비골근 약화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권장된다.

한의학에서는 발목 염좌의 경우 손상 부위 침 치료와 자락관법을 병행하여 통증 및 부종을 경감시킨다. 아킬레스건 및 비골근 문제도 함께 발생하므로 하지부의 족태양방광경 및 족소양담경의 경혈에 대한 침 치료 및 부항요법이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 전침, 약침 등을 시행하며 타박, 어혈 등에 사용하는 당귀수산, 국소 발열과 부종에 사용하는 청열사습탕 등의 한약 처방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발목 염좌가 만성화된 경우에는 자침 후 침체를 가열해 심부 조직에 열자극을 가하는 가열식 화침이 도움이 된다. 이는 연구를 통해 손상된 인대 조직에 플라젠과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등의 인대 복원 효과가 입증되었다.

치료 후 적절한 재활 운동과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해진 인대는 다시 손상되기 쉽다. 발목 염좌 예방을 위해서는 발목의 안정성과 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발목을 지지해줄 수 있는 적절한 신발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만약 이전에 발목 손상 경험이 있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추가 조치를 시행하거나 스쿼트, 런지, 카프 레이즈와 같은 운동을 통해 발목 주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야 한다.

기고

한국의 운전자들과 교통문화



루이스 빈치게리 전 호남대 영문과 교수 강사량한경대학 참여활동가

필자는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 엑스팻(expat·국의 거주자)이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갑탄할 정도로 좋은 점들이 많다. 건강 보험 체계,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 길을 가다 폭력 사태와 맞닥뜨릴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 등이 그 몇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 전 사회에 만연한 총기 사건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강력 범죄를 고려할 때 한국은 상당히 안전한 곳이다.

이처럼 좋은 점들이 많은 한국 사회지만 오늘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한국인의 운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한국인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운전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16살에 운전 면허를 취득, 은퇴를 한참 넘긴 지금까지 운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오랜 기간에 걸친 운전 경험 및 관련 분야 조사 결과에 기초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밝힌다. 먼저 언급할 것은, 한국이 여러 차례 도로 안전 대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

다. 특히 한국 보행자의 사망률은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한다. 이렇게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필자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도로에 왜 그렇게 과속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한국에서는 운전자들이 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가 흔하고 또 제한속도를 어길 때도 많기 때문이다.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과속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시내 주행 시 속도를 낮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도로와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 수가 왜 그렇게 적은지도 궁금할 때가 많다. 도로와 거리에 더 많은 경찰을 배치하면 분명 도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차량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의 또 다른 원인은 주행 중 차간 거리가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로 위에서 수없이 발생하는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며 역시 한국의 도로에서 너무 자주 볼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 습관 중 하나다.

또 다른 나쁜 운전습관으로는 운전 중 너무 자주 다른 차량을 추월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차선을 지그재그로 누비는 것인데 이는 특히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 무척 위험한 행위다. 단선 도로 운전시 뒤차 운전자가 급한 기색을 보이면 길가로 차를 붙여 뒤차가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가 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별일 없는데 무책임한 운전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런 운전자들은 먼저 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잠재적 충돌

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운전 강사들이 처음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뒤차 운전자를 무시하라고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이는 잘못된 조언이다. 왜 이런 좋지 않은 조언을 하는지 참 알 수 없다.

좌우 회전 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회전을 하면서 그때서야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았다. 이 같은 행동 역시 뒤따라오는 운전자가 정지 또는 회전과 같은 앞차의 움직임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운전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술을 마셨는데 운전대를 잡거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자주 목격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운전자가 옆사람에게 말을 하기 위해 너무 오랫동안 도로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도 보았다. 모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나쁜 운전 습관이다.

그렇다. 한국 운전자들은 상식에 좀 더 충실하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에는 물론 다른 원인들도 있었지만 위에 언급한 것들이 누가 봐도 분명한 이유이지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 운전자들에 부탁하는 말로 글을 맺고자 한다. 운전 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한국이 운전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가 되길 바란다. 운전 시 다른 운전자들에게 친절과 인내심, 배려를 보여준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社說

달빛고속철도 복선화가 오히려 경제성 높다

얼마 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소식이 지역민들을 뜨겁게 했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헌정 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한 법안으로 기록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져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특별법 법안의 기본 방향에 '철도를 단선으로 추진하고 향후 미래 수요를 감안해 복선화 및 첨단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호남 속원사업인 달빛고속철도가 경제성이 낮은 저속철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단선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공사비를 절감해 복선화 및 첨단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근시안적 태도다. 수요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단선으로 추진했다가 다시 복선으로 할 경우에는 최소 10년이 더 걸리고 그동안 저속철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복선으로 건설할 경우 비용은 30% 가량 늘어나지만 운행 횟수 등 선로 용량은 4~5배 늘어 경제성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긴축재정을 내세워 단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는데 법안의 기본 방향에 복선화를 명시해 애초부터 호남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남선은 착공 54년 만이자 복선화 추진 35년 만에 완공되면서 차별의 상징이 됐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교류의 상징성도 크다. 우선 20여년 만에 특별법 발의라는 성과를 이뤄낸 만큼 애초부터 경제성 없는 저속철이 되지 않도록 복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등으로 다양화 돼 있는 사업시행자도 철도의 건설과 유지 관리를 맡는 국가철도공단으로 일원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섬에 정규 교사 배치 '기초정원제' 기대 크다

전남교육청이 교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에 정규 교사를 우선 배치하는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으로 악화된 교육 환경을 개선할 획기적인 안인데다 전남이 주력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에 효과적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은 공립 중등의 경우 323교 중 173교(53.6%)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인 정도로 교육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이들 소규모 학교는 교원 정원 부족으로 정규 교사 대신 겸임·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3학급당 정규 교사 8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 방침에 따라 1명이 줄면서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여기에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교원 배치까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남에서 329명(초 등 50명, 중등 279명)의 대규모 교원 정

원을 감축했는데 이 여파가 겸임·순회 및 기간제교사 선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 전남의 경우 교사가 부족해 아이들이 학습권 소외를 당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은 적정 교원 수급 모델 마련을 위한 논의 끝에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내년부터 1단계로 도서 지역 14개 중·고교에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해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학교 현장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적정한 교원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언젠가 집 앞 공연장을 지나다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하늘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마치 하늘색 도미노가 광장을 점령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70~80대 할머니들의 상가된 얼굴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난생 처음 가수 콘서트

후)이 되는 건 팬들의 로망이다. 2020년 JTBC '싱어게인'에 등장한 '30호 가수' 이승윤에 꽂혔던 지인은 한동안 나에게 그의 노래를 소개하느라 바빴다. 박진영의 'Honey', 산울림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등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들려주는 노래는 특별했다.

덕질과 성덕

를 보고, 팬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 대다수이지 않을까. 가수 이승윤의 콘서트 후 풍경은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사람들에게 책을 처방해주는 '사적인 서점'의 정지혜가 펴낸 '좋아하는 마음이 우릴 구할 거야-그것이 덕질'의 즐거움은 아이돌 덕

하정 감독은 마음을 움직인 곡 '무명성 저구인'을 영상으로 만들어 '당신의 무비를 만들고 싶다'는

질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했다는 이의 고백서다. 그를 구원한 건 바로 BTS였다. '요즘 덕후의 덕질로 철학하기-우리는 누구나 무언가의 덕후다'의 조용미 역시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50대에게 어느 날 찾아온 덕질이 바꾸어 놓은 일상을 이야기한다.

팬지와 함께 이승윤에게 전달한다. 편지에 감동해 한참을 울고 난 무명가수 이승윤은 흔쾌히 촬영을 허락했고 무비 촬영 중 싱어게인에서 우승한다. 권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관객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사소한 것일지라도 '오늘 뭐라도 해볼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덕질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문화가 됐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좋아하고 몰두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뜻하는 '성덕(성공한 덕

덕질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누군가를 가리지 않고 하나의 문화가 됐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좋아하고 몰두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뜻하는 '성덕(성공한 덕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위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